

구역공과 제2권 (제7단원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제34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준비

- 본문 : 마태복음 24:40-51
- 요절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 24:44)
- 찬송 : 370장(새찬송가 330장), 377장(새찬송가 449장)

공과내용

그리스도의 재림은 수천 년간이나 이어온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함과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새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과 신부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신혼 살림살이를 장만하는데 나름대로 각별한 정성을 쏟듯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재림의 그 날을 대망하며 평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착실하게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정혼한 처녀가 오로지 신랑될 남자만 사랑하며 정절을 지켜야 하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치 처녀가 정혼한 상대 외의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경우처럼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고 하셨으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 10: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죄악시하거나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무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매사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적용함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간계에 빠져 타락한 것같이 우리 역시 자칫 방심하면 마음을 도적 맞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고후 11:3). 우리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실한 믿음과 깨끗한 행실로 아름답게 단장해야 하겠습니다.

2.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 여행을 떠나는 주인에게서 집안일을 위임받은 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워서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고 또 다른 종들을 잘 감독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보고 기뻐하며 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겨줄 것이지만, 만약 그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로 소일하다가 가는 불시에 돌아온 주인에게 발각 되어 엄한 벌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종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직분에 충성을 다하였느냐에 따라 상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헌신한 성도는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불 가운데서 너끈히 견뎌내듯이 그 공력을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성에 젖어 자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되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 같아서 불로 시험할 때 타버리므로 아무런 공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구출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고전 3:14~15).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맡겨 주신 각자의 직분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라는 뜻이지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마 24:40~41)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서도 밭을 갈고 매를 가는 일상생활에 충실한 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잠자는 중일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어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이므로 걱정할 까닭이 없습니다(마 24:31).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해 저마다의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말세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자들이 일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딤후 4:1~3)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상 생활을 죄악시하거나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등한히 하도록 부추기는 잘못된 자들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맡은 직분에 충성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